



수질 보호에 앞장서는 물지킴이가 되고 싶어요!

양재천 사랑 환경지킴이

물이 살아야 우리의 환경이 살아나고, 환경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도 열린다. 다시 살아난 양재천을 지키며 물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환경전문 자원봉사자 모임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 회원들을 만나 그들의 특별한 자연사랑, 물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윤종환 · 사진 곽동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환경지킴이

산란기를 맞이한 잉어 떼가 양재천을 찾아오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신기해하던 참에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에서 실시하는 생태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양재천을 찾았다. 마침 주말을 맞아 인근의 중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양재천 생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박점수 회장을 비롯한 고귀자, 박경혜, 박연자 회원을 만날 수 있었다.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다시 살아난 양재천의 생태해설을 통해 양재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생태환경 모니터링과 환경보존활동을 통해 양재천을 지키려는 환경전문 자원봉사자 모임이다. 지난 2002년 7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으로 발족한 이래 1, 2기 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30명 이상의 3기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한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양재천 주변에 사는 주민들로 평소 즐겨 찾던 양재천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싶어 자원봉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입만 한다고 저절로 양재천의 환경지킴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주일에 2번씩 총 30시간의 환경교육을 이수해야만 생태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수가 있다.

"양재천의 주인은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양재천을 애용하는 손님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재천의 자연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생태체험교육에 앞선 사전 강의에서 박점수 회장은 '환경 마인드'를 강조했다.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시키명고 악취가 나는 5급수였던 양재천이 잉어 떼가 헤엄치는 2급수가 되기까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다.



170여종의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는 친수환경공원 양재천

양재천은 관악산과 청계산에서 시작하여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를 지나 탄천으로 흘러가는 15.6km의 자연형 하천이다. 지금은 서울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친수환경공원으로 거듭났지만, 이전의 양재천은 생활하수와 각종 산업폐수로 오염된 죽은 하천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시작된 자연하천 복원 계획에 따라 정화 작업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현재는 2급수(갈수기에는 3급수)까지 수질이 개선되었다.

우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정화시설을 갖추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긁어내고 자갈을 깔았다. 콘크리트로 벽을 허물고 자연제방을 만든 후 수질정화 효과가 뛰어난 버드나무, 갈대, 물억새 등의 식물을 심었으며, 습지를 조성하였다. 그런 노력이 계속되자 더러

웠던 물이 점차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물이 맑아지니까 그 속에 서식하는 곤충의 종류가 늘어나고, 곤충

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각종 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1975년 강남구 토지구획개발 과정에서 직강 도시형 하천으로 바뀌었을 당시만 해도 7, 80여종에 불과했던 양재천 서식 생물들이 지금은 식물 170여종, 어류 20여종, 곤충 60여종, 조류 40여종으로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양재천의 생태지수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양재천은 이제 인근 주민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도시생태공원으로 환골탈퇴 하였다. 양재천을 따라 피어난 예쁜 들꽃들과 시원하게 날아드는 새들을 보면서 물이 살아야 쾌적한 환경과 미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수질보호는 미래를 위한 선택, 우리 모두 동참해야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 회원들은 양재천의 수질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고 생태지수도 더 높아지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양재천이 흐르는 주변 지자체에서도 수질 관리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서초구에서도 수질정화시설을 마련하여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양재천의 수질이 더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양재천의 성공적인 변신에 자극을 받은 타 지역에서도 자연형 하천과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견학을 옵니다. 그분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 위주로 시설을 만들지 말고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가능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사람들의 편익만 생각하면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환경을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금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환경 마인드’이다. 양재천사

랑 환경지킴이의 활동이 생태교육프로그램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생태교육프로그램은 작년 한 해 동안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는 그 두 배가 넘는 3,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환경 마인드’를 갖게 되고, 또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환경에 대

한 인식을 널리 퍼뜨려준다면, 양재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이 1급수가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

의 활동이 그들의 바람처럼 우리나라 수질보호 운동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

* 양재천 생태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TEL. 3445-5152)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